

조기 진통에 의한 조기분만 산모의 혈액에서 Transglutaminase 2의 유전자 다형성

고현선, 오세정, 김연희, 길기철, 김사진, 박태철, 나종구, 김수평, 신종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목적 : 조기 진통에 의한 조기분만이 transglutaminase 2 (tTG2) promoter 부위의 유전자 다형성과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 2005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가톨릭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분만한 한국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군으로는 조기 진통으로 임신 36주 이전에 조기분만한 60예, 대조군으로는 조기분만의 과거력이 없으면서 임신 38주 이후에 분만한 195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임신부의 혈액으로부터 DNA를 추출하여 tTG2 promoter rs2235583의 유전자형을 알기 위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과 직접염기분석을 시행한 후 CLUSTAL W program (<http://bioinfo.cnio.es/treeapp/clustal-sample1.htm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만삭분만군에서 tTG2*C/tTG2*C는 65.1%, tTG2*C/tTG2*T는 3.1%, tTG2*T/tTG2*T는 31.8%였다. 조기 진통에 의한 조기분만군과 만삭분만군의 tTG2*T 운반율은 각각 61.4%, 33.9%로 조기분만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odds ratio 2.966, 95% confidence interval 1.51-5.82). 또한 tTG2*T 대립유전자의 빈도도 조기분만군이 만삭분만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6$, odds ratio 1.911, 95% confidence interval 1.19-3.05).

결론 : tTG2 promoter rs2235583 유전자 다형성은 한국임산부에서 조기진통 및 조기분만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